부처가 되지 못할 인연은 없어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㉚ 상불경보살의 인사말

최초의 위음왕 여래께서 열반에 드신 뒤 정법이 없어지고 상법의 세상에서 잘난 체하는 비구들이 큰 세력을 이루더니, 그때 상불경이라는 이름의 한 보살비구가 있었느니라.

득대세보살이여, 그 무슨 인연으로 이 보살비구 이름을 상불경이라 했는가 하면 이 비구는 만나는 사람에게 그가 비구건 비구니건 우바새건 우바이건 간에 찬탄하면서 이렇게 말했느니라.

"나는 그대들을 깊이 존공하며 감히 가벼이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의 도를 행하여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구는 오로지 경전을 독송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만을 행하여, 멀리서 사부대중을 보더라도 일부러 따라가서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나는 그대들을 감히 업신여기지 아니 하노니, 그대들은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하였느니라.

이리하여 사부대중 가운데 화를 내거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이가 나쁜 말로 욕설을 퍼부어 말하기를 "이 무지한 비구야, 어디서 왔기에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그대들을 업신여기지 않노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마땅히 부처가 되리라 하면서 하나, 수기를 주듯이 말하는가? 우리는 그런 허망한 수기를 받지 않노라."

이렇게 여러 해를 다니면서 욕을 먹어도 성을 내지 않고 항상 말하되, "그대들은 장차 부처가 되리라" 하니,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몽둥이로 때리고 돌을 던져도 피해 달아나면서 오히려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내 감히 그대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노니, 그대들은 다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고 하였느니라. 그가 항상 이렇게 말하므로 잘난 체하는 비구 · 비구니 · 우바새 · 우바이가 별명을 지어서 '상불경'이라 하였느니라.

〈법화경〉에서 특이한 이미지를 갖고 등장하는 보살이 상불경보살이다. 보살이면서도 비구이므로 보살비구라 하였다. 먼저 이름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인사말이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보살도를 행하여 부처가 될 것입니다'이다. 항상 업신여기지 않고 존경한다는 뜻으로 이름이 상불경(常不輕)이다.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이다. 〈법화경〉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해 놓고 있다. 8세 용녀가 성불했다는 이야기를 비롯해 철모르는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만들 때 불상 모양의 장난감을 만들면 이것이 성불의 인연이 된다고 하였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부처가 되지 못할 인연은 없다는 것이다.

불교의 신앙 의례에서 예불은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된다. 절을 하는 것은 공경을 표하는 것으로 부처님을 받드는 기본 자세이다. 달리 말하면 귀의할 때 취하는 태도이다. 귀의한다는 말이 범어의 나마스(namas)인데 이 말을 보통 '나무(南無)'라고 한자를 써서 읽는다. 이 나무가 예배를 의미하는 말로 귀의하는 신앙을 나타내는 말이다. 상불경보살의 말은 귀의 · 찬탄의 말로 남에 대한 예의(禮儀)의 극치를 나타내는 말로 볼 수 있다. 사람의 말이란 서술되는 표현의 수준이 있다. 흔히 말하는 이른바 반말보다는 존댓말이 격이 높은 것이다. 상대를 높여 말하는 것이야말로 '나무'를 통한 선행이다. 먼저 존경 찬탄의 마음이 우러나는 것은 의업의 선(善)이 되고 입으로 부르는 것은 구업의 선이 된다. 그리고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신업의 선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무'를 부르며 절을 하는 것이 삼업(三業)의 선이 되는 것이다. 상불경보살은 인사를 하다 수모를 당하고 심지어 구타를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피해 가면서 인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하였다. 불교의 수행은 중생의 마음을 성숙시켜 부처의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므로 자비가 지극해져 이 세상에 적(敵)을 두지 않는 것이다. 이를 '자비무적(慈悲無敵)'이라 한다. 법화경문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전신(前身)의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데바닷타가 과거 생에 부처님의 스승이었다는 이야기가 전생의 인연을 말하는 전신 이야기인데 '상불경보살품'에서도 상불경보살이 과거생의 석가모니의 전신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중생이 누구나 전생, 금생, 내생 삼생(三生)의 인연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이고 내일의 내가 되듯이. 전생이 어제와 똑같은 의미의 과거라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계'와 '율' 구분 않고 '계율'로 총칭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㉚ 중국에서의 보살계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는 아시아 전역에 전해졌으며, 그 지역의 자연적 · 문화적 환경에 순응하면서 발전하였다. 이로 인해 각 지역에 정착된 불교는 인도와 다른 양상을 띠기도 하는데, 계율도 예외는 아니다. 인도에서 계(戒)는 주로 '습관적 행위'를 가리키며, 율(律)은 '출가자의 규율(規律)이나 그것을 수록한 문헌'을 가리킨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계와 율의 의미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계율로 총칭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살계를 계율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계율에 대한 복합적 인식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일본의 불교학자인 후나야마 도루(船山 徹)는 5세기의 상황을 꼽는다. 이때 주요한 율장이 계속 한역되어 실천 기반으로 쓰이는 한편, 그러한 '소승의 율'과는 별도로 '대승의 계'로서 보살계가 중국의 불교도 사이에 알려지고, 순식간에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한인 승려들은 부파의 율장을 교단의 운영 기반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실천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부파의 율장은 실천 기반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는데, 당시 중국은 인도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담무참이 한역한 〈보살지지경〉과 〈우바새계경〉, 구나발마가 한역한 〈보살선계경〉은 대안이 되었다. 담무참에 의해 중국문화권에 처음 전해진 보살계는 지지계(地持戒)로 불리면서 중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부파 율장과 보살계의 양립은 중국불교가 해결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였다. 한편으로는 한인 승려들에 의해 부파 율장 가운데 하나인 〈사분율〉에 근거한 사분율종이 형성되었으며, 그 계통을 이어받아 남산율종 또는 남산종이 융성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살계의 수계(受戒)가 유가계(瑜伽戒)에 의해 중층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출가자에게는 5계, 사미 · 사미니계, 구족계, 보살계의 순서로 수계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으며, 재가자에게는 〈우바새계경〉에 의해 수계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일본의 불교학자인 모리 쇼우지(森章司)가 지적한 '계(戒) 정신의 변용'이다. 애초에 출가자와 재가자가 공통으로 받들어야 마땅했던 계에, 출가자와 재가자라는 구별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의 연구 성과에 비추어 보아도 대승계, 즉 보살계의 정신과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유가계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보살계는 출가 보살 중심의 〈보살선계경〉과 재가 보살 중심의 〈우바새계경〉에서 모든 보살을 대상으로 하는 〈보살지지경〉과 〈유가론(瑜伽論)〉의 보살지(菩薩地)로 정비되었기 때문이다. 출가 교단과 재가 신자라는 이원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승계 정신의 변용이라는 평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유가계는 인도 대승계의 정점(頂點)으로 여겨지지만, 중국에서는 부파 율장의 연장선에서 수용 및 변용되어서 그 장점이 드러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중국에서 찬술된 것으로 여겨지는 〈범망경〉과 〈보살영락본업경〉에 근거한 범망 · 영락의 대승계가 점차 유가계를 대체하게 된다. 일본의 불교학자인 오키모토 가츠미(冲本 克己)는 두 경전을 〈유가론〉의 통불교적 성격에 대해 순대승적 성격을 간직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여하튼 두 경전이 동아시아불교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며, 특히 〈범망경〉의 십중(十重) ·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는 오늘날까지도 보살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⑥ 괴로운 이 세상 어떻게 살까요?

한 생각 멈추면 해탈열반

두 가지 마음장애, 번뇌장(煩惱障)과 소지장(所知障)

불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는 번뇌의 장애인데, 마음을 물들게 하고 제법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입니다. 흙탕물이 뒤섞여 흔들리게 되면 물속을 들여다볼 수 없듯이 객진번뇌로 오염된 마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누누이 "여실지견(如實之見)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실지견이란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즉 제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중생의 마음은 번뇌의 장애 때문에 자기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장애 때문에 '나'가 있다는 잘못된 사견을 일으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망견을 일으키고 또 표상과 가상과 허상을 진실인양 착각하고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 어리석은 중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는 소지장(所知障)이라 부르는 무지의 장애입니다. 무지의 장애는 완전하게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장애, 알지 못하는 장애, 지혜가 없는 장애입니다. 결국 중생의 마음은 이 번뇌의 장애와 무지의 장애로 인해 사견이 생겨나 아견과 법견을 일으키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만들고 갈애를 일으켜 악한 업을 짓고 그에 따른 과보로 괴로움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멸하는 마음과 불생불멸의 마음

불자 여러분! 마음의 장애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바로 '무명'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이 무명 때문에 업식(業識)이 일어나 끝없이 '생각[念]'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당체인 진여본성은 생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명의 업식에 의해서 생멸하는 작용이 일어날 때도 진여본성은 생멸하지 않고 부동으로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은 불생불멸하는 진여본성의 마음과 생멸하는 중생심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인간의 이러한 이중적인 마음 때문에 마음의 당체인 진여본성은 불생불멸이라 움직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마음은 무명 업식의 작용이 일어나 진여본성을 깨닫지 못하는 불각의 상태가 되어서 생멸하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 업식으로 인해 마음의 장애가 일어나고 연이어 망상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은 보는 마음[주관심]과 보이는 마음[객관심]이 생겨나 주관과 객관으로 이원화되고 이때 보는 마음을 '나'라고 집착하는 자아의식이 생겨나서 보이는 경계상을 남[他]이라 생각하며 대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은 마음의 장애를 일으켜 사견과 갈애를 만들어서 업을 짓고 그에 따른 과보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한 생각이 일어나면 육도윤회세계가 펼쳐지고, 한 생각을 멈추게 되면 그대로가 진여본성 즉 해탈열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의 장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장애가 없으면 오온가화합으로 된 자기와 세상에 속지 않아서 집착심을 일으키지 않게 되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면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과보로 인한 괴로움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마음이 한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마음이 생멸하게 되므로 진여본성의 반야지혜가 분별하는 식(識)으로 전변되어서 마음의 장애를 일으켜 오염된 마음으로 변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은 마음의 장애를 만들어 사견과 망상을 일으켜 업을 짓고 그에 따른 과보로 생사윤회가 있는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무명 업식의 업력에 이끌려 분별하는 생멸심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불생불멸하는 진여본성과 계합상태의 마음으로 만들 것인가.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의 신념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人生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답이 法華經에 있다!

NAVER 법화경전문강설 검색 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崔光永研究室